

4·30 포천시연천군 국회의원 재선거

한나라당 고조흥 후보 當選

“전철 7호선 연장, 경원선 복선화 추진하겠다”



4·30 포천시·연천군 선거구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기호2번 한나라당 고조흥 후보가 3만16천286표를 얻어 1만4천634표를 얻은 기호1번 열린우리당 정명재 후보를 2만1천652표의 큰 표차로 누르고 당선됐다.

4·30 포천시·연천군 선거구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기호2번 한나라당 고조흥 후보가 3만16천286표를 얻어 1만4천634표를 얻은 기호1번 열린우리당

정명재 후보를 2만1천652표의 큰 표차로 누르고 당선됐다. 기호3번 새천년민주당 이운구 후보는 5천254표를 얻었다.

이날 선거는 포천시 선거인수 11만1천395명중 3만9천727명이 투표에 참가했고 연천군은 선거인수 3만7천386명중 1만7천21명이 투표에 참가해

37.4%의 투표율을 보였다.

이번 재선거에서 기호1번 열린우리당 정명재 후보는 포천시에서 1만828표(27.5%), 연천군에서 3천806표(22.6%)를 얻었고 기호2번 한나라당 고조흥 후보는 포천시에서 2만1천122표(68.9%), 연천군에서 9천164표(54.5%)를 얻었으며 기호3번 새천년민주당 이운구 후보는 포천시에서 1천411표(3.6%), 연천군에서 3천843표(22.9%)를 얻었다.

당선의 영예를 안고 금뱃지를 달게 된 고조흥 당선자는 당선소감을 통해 “지역주민들께서 막중한 책임과 사명을 맡겨주신 만큼 항상 주민들의 뜻을 받들어 결코 실망드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선거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에 대해 고 당선자는 “지역주민들의 선거에 대한 관심 부족으로 이는 정치에 대한 실망감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라 생각된다”며 “두 차례의 선거에서 실패했던 경험에 대해 이번에도 되겠느냐는식의 흑색여론을 퍼트리는 등 음해활동이 힘들었다”고 말했다.

선거 승리요인에 대해서는 “묵묵히 실천하고 든든하게 일할 수 있는 인물이라는 신뢰감을 지역주민들께서 평가해 주셨고, 두 차례 도전했다가 실패했던 경험에 이번에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공감을 얻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국정활동계획에 대해

서는 “이중삼중의 규제를 완화하는 노력이 절실한 만큼 이같은 점을 개선하기 위한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임기 3년에 대한 마스터 플랜은 “공약사항으로 약속했던 전철7호선의 노선을 연장하는 문제라든가, 경원선 복선화 추진, 연천에 박물관이나 문화체험관 등의 건립, 도서관이나 연천소방서의 조기설치 등 주민생활관익시설을 확충하는데 발벗고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속 상임위는 “법률전문가 출신으로서 법사위에서 소임을 다할 수가 있다”고 밝히고 교육위나 건강위도 고려 중이라며 시간을 두고 생각을 정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약이행 및 지역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구상에 대해 고 당선자는 “공약은 주민과의 약속인 동시에 지키기 위해서 있는 것이라는 점을 항상 유념하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지역주민들에게는 “많은 분들이 기대와 격려는 물론, 걱정하시는 점들이 적지 않은데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말을 앞세우기 보다 실천하는 국회의원으로 일해 나갈 것이며 보다 겸손한 정치와 깨끗한 정치를 하는데 앞장서고 실망시키지 않겠다는 점”을 밝히고 주민들의 아낌없는 지도편 달을 부탁하기도 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社 告

불우이웃돕기창구

포천신문은 불우이웃돕기 창구를 상시 운영하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이 되고 불우이웃돕기에 나서는 분들에게는 감동이 될 수 있도록 불우이웃돕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불우이웃돕기 운동 참여방법은 직접 성금을 기탁하거나 계좌입금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울러 꼭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이웃들을 소개하여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한 4월부터는 금액에 상관없이 자동이체 하기로 하고 포천신문 조사위원회부터 송전수범하여 불우이웃돕기 창구를 활성화 하기로 했습니다. 뜻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합니다.

2005년 4월21일부터 5월1일까지 포천신문 불우이웃돕기 창구에 성금을 기탁하신 고마운 분들과 직접 성금이나 물품을 전달받은 분들을 아래와 같이 밝혀 드리는 것은 서로의 고마움을 알고 함께 더불어 열심히 노력하자는 뜻에서입니다.

성금을 계좌입금하신 분들은 아래 문의전화로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물품을 접수하고자 하는 분들도 미리 전화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금 및 물품 접수 내역

· 국방부 부이사관 박용구 20만원

■ 성금 및 물품 전달 내역

- 이보라 보장초등학교 2학년 성금 10만원
- 윤수철 보장초등학교 2학년 성금 10만원
- 박채린 보장초등학교 3학년 성금 10만원
- 이강철 보장초등학교 4학년 성금 10만원
- 강택규 보장초등학교 6학년 성금 10만원

불우이웃돕기 문의: 031-542-1507
계좌: 농협 585-12-113010(최효열, 포천신문)

* 포천신문 불우이웃돕기창구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포천신문

고조흥 국회의원 당선자 ▶ 4면
한전 금주2리와 '1사1촌' 자매결연 ▶ 14면
(주)꽃샘종합식품 축구유니폼 전달 ▶ 16면

청소년수련관 건립 추진

2006년 3월 준공 예정 58억여원 투입

포천시는 지난 22일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의 심신단련과 취미개발, 정서함양을 위해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한다고 밝혔다.

포천시 청소년수련관은 소흘읍 이동교리 산2번지 일원 9천980㎡ 부지에 지하1층 지상3층 연건평 4,616㎡ 규모로 건립되며 58억여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2006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청소년수련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포천시는 이미 지난해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여섯 차례에 걸쳐 벤치마킹과 자문회

의 등을 개최했다.

또 관내 240명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청소년극장, 동아리방, 청소년교실, 카페, 노래방, AV실, 인터넷방 등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시설을 수련관 내에 배치하기로 했다.

수련관에는 또 지역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체육단련장과 다용도 체육실 및 강당이 들어서며, 특히 장애인 전용 체육실도 마련된다.

포천시는 올 하반기에 공모를 거쳐 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자를 선정하고



포천시 청소년수련관 조감도.

세부 운영프로그램 준비에 들어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포천지역에 그동안 청소년들을 위한 여가공간이 부족했지만, 새롭게 건립되는 수련관이 건전한 청소년 문화 발전을 이끌어 나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혜비 기자 94spice@hanmail.net

포천그린농업대학 교육생 모집

5월 20일까지 원서 접수

포천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광원)는 전문기술과 경영능력을 갖춘 지역농업을 이끌어 나갈 농업선도자를 양성하기 위해 포천 그린농업대학을 개설하기로 하고 교육생을 모집한다.

입학 지원서는 5월 2일부터 20일까지 포천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접수하며 서류심사와 농업산학협동심의회 등을 거쳐 6월 7일 최종합격자가 발표될 예정이다.

포천 그린농업대학은 30명을 정원으로 하며 올 7월부터 11월까지 총 13개 강좌 86시간의 강의로 진행된다. 보다 수준 높은 교육을 위해 외대강사도 초

빙된다.

포천그린농업대학은 '농업기본이론' 및 '친환경농업 전문기술'에 대한 교육을 중심으로 해, 현장교육과 실습, 교양강좌 등을 병행해 나가게 된다.

포천시는 과정 수료 후에도 지속적인 연계학습을 통해 지역 농업의 선도자를 양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포천 그린농업대학과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포천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 ☎(031-530-8572)로 문의하면 상담 받을 수 있다.

지혜비 기자 94spice@hanmail.net



<서평> 서평을 부탁받고 처음 원고를 대하는 순간 진한 흥분세를 품기며 아련한 어린시절 옛 추억이 주마등처럼 스쳐왔다. 한동안 까맣게 잊고 있었던 어린시절의 고향이 떠오른 것이다. 앞집에 살던 개구쟁이 남매는 어디에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 느티나무 아래 모이시던 어른들은 돌아가시지나 않았는지. 각박한 도시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 이따금 향수를 느끼게 하는 자극이 필요하다. 메마른 가슴을 적시는 단비처럼 잠시나마 찾아보는 푸근한 여유, 그리고 언제나 어머니와 아늑한 품과 같은 고향 동창회에서 만나 옛 친구와 기울이는 소주잔과도 작은 기쁨이 그것이다.

- SBS서울방송 대하드라마 '토지' 방송작가 이용규

<서평> 박용구씨의 작품은 자신 개인의 가족사라기 보다는 우리 한국인의 근본과 생활사를 알 수 있는 한편의 다큐멘터리이다. 조금은 거창한 비유 같지만 끈끈한 가족애와 모성을 기반으로 한지붕 밑에서 오손도손 살아가는 생활사 박물관의 디오라마를 보고 있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다. 박씨의 어린시절 모습은 우리 모두의 동심요. 젊은 날의 방향은 당시 사회상을 보는 것 같고 어머니를 떠나 보내는 모습은 석양을 향해 구성진 소리를 하며 상어를 메고 나가는 장례행렬을 보는 듯하다. 여기에 부모님에 대한 애절한 그리움은 우리의 가슴 깊숙한 곳에 품고 있는 한국인의 사모곡이다. 어린시절에서의 대목에선 미소가 떠올랐지만 어린시절에 이야기로 갈수록 가슴이 아픈것을 보면 역시 늙는다는 것은 서러운 것인가 보다.

- KBS미니시리즈 '청춘이고합니다' PD 문용민

“어머니가 있어서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어떠커니’ 를 읽고 어머니를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지 않을 사람은 없다



저자 박용구 박사

“어떠커니 어떠커니, 내가 너희들을 두고 먼저가니 어떠커니. 먼저 가신 아버지 만나면 활달도 준비 못했고 너들 이야기도 다 못듣고 가는데 어떠커니.” 울먹이며 하신던 어머니의 그 마지막 육성을 들으며 가만히 손만 잡아 드릴 수밖에 없었다. 죽음을 앞에 둔 사람은 남겨진 이들을 걱정한다. - 본문 중에서 -

출판기념회

- ☎ 도서명: 어떠커니
- ☎ 저자: 박용구 박사
- ☎ 시외지: 가부 임종신
- ☎ 출구: 가부 임창제
- ☎ 발행 시: 2005년 5월 7일(토) 오후 3시
- ☎ 장소: 포천중앙공원 9호 내 반월체육관
- ☎ 포천시근대문화정보관 663번지
- ☎ 출판사: 도서출판 깨끗한 오늘
- ☎ 서울시마포구 상수동 332-1번지
- ☎ 전화: 02-323-2223 FAX: 02-323-1616
- ☎ 홈페이지: ssfococus.co.kr

*원문은 사정상일체 받지 않습니다. 이름 양해 바랍니다.

도서출판 '깨끗한 오늘' 발행도서

